

엘엔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회사 소개서



목 차

01. 회사 개요
02. 경영진 및 주주현황
03. 조직도
04. 당사의 주요업무
05. 재무현황
06. 운용펀드 현황
07. 주요 운용인력의 투자실적
08. 업무 파트너
09. 언론보도

1. 회사 개요

회사명칭 엘엔에스자산운용(주)
(LNS Asset Management Co., Ltd.)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16층(여의도동, 구KTB)

인가업무단위 전문사모집합투자업(3-14-1), 투자자문업(5-1-1)

법인설립일 2019년 6월 17일

등록인가일 2019년 10월 20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0년 7월 14일 (투자자문업)

임직원수 19명 (운영전문인력 9명)

자기자본 5,801백만원 (자본금 2,260백만원) (2021년 06월 30일 기준)

홈페이지 www.lnsasset.com

연락처 02-6925-5941

2. 경영진 및 주주 현황

(1) 경영진

대표이사	서경민	카카오페이증권((구)바로투자증권) 대표이사, 신한종합금융
전무이사	조성호	한화자산운용, 한화종합금융
이사	이창환	이즈베스트
감사	최영근	동유인베스트먼트

(2) 주주

이영진	50.00%	최대주주
서경민	10.00%	대표이사
기타주주	40.00%	개인
합계	100.00%	

3. 조직도



4. 당사의 주요업무실적

1) Fund 업무 (기준일: 2021.06.30)

부동산 실물 펀드 : 1개 펀드 (순자산 약 17억)

SH/LH 공사의 매입 임대주택 PF펀드 : 11개 펀드 (순자산 약 1,125억)

공모주 펀드: 4개 펀드 (순자산 약 158억)

3) Equity 투자

부동산 개발, 벤처 투자, 메자닌 투자

2) 금융주선 증개

2020년 금융 자문계약 실적 34건 (약 1조 3천억원)

4) 투자자문업무

부동산 투자자문, 사업성분석, 사업구조 개발, 자금관리

5. 재무현황

<u>구분</u>	<u>금액</u>	(기준일: 2021.06.30 기준 / 단위: 백만원)
자산총계	9,234	
부채총계	3,433	
자본총계	5,801	
영업수익	5,524	
영업이익	1,855	
당기순이익	1,464	

6. 운용펀드 현황 1

펀드명

펀드내용

(기준일 : 2021.06.30.)

엘엔에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부동산)

- 부동산 실물 펀드 / 순자산 17억
- 대학로에 위치한 상가건물 인수 후 임대료 수취 및 Value Add하여 매각하는 전략

엘엔에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0호(제10임대주택NH)

- PF대출 펀드 / 순자산 120억
- LH공사가 매입확약 한 부산시내 임대주택 신축사업에 공사비 대출해주는 펀드

엘엔에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2호(제12임대주택SH)

- PF대출 펀드 / 순자산 263억
- SH공사가 매입확약 한 서울시내 임대주택 신축사업에 공사비 대출해주는 펀드

엘엔에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3호(제13임대주택NH)

- PF대출 펀드 / 순자산 10억
- LH공사가 매입확약 한 강릉시내 임대주택 신축사업에 공사비 대출해주는 펀드

6. 운용펀드 현황 2

펀드명

펀드내용

(기준일 : 2021.06.30.)

엘엔에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4호(제14임대주택NH)

- PF대출 펀드 / 순자산 130억
- LH공사가 매입확약 한 서울시내 임대주택 신축사업에 공사비 대출해주는 펀드

엘엔에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5호(제15임대주택SH)

- PF대출 펀드 / 순자산 95억
- SH공사가 매입확약 한 서울시내 임대주택 신축사업에 공사비 대출해주는 펀드

엘엔에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6호(제16임대주택SH)

- PF대출 펀드 / 순자산 116억
- SH공사가 매입확약 한 서울시내 임대주택 신축사업에 공사비 대출해주는 펀드

엘엔에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7호(제17임대주택NH)

- PF대출 펀드 / 순자산 81억
- LH공사가 매입확약 한 이천내 임대주택 신축사업에 공사비 대출해주는 펀드

6. 운용펀드 현황 3

펀드명

펀드내용

(기준일 : 2021.06.30.)

엘엔에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8호(제18임대주택LH)

- PF대출 펀드 / 순자산 47억
- LH공사가 매입확약 한 서울시내 임대주택 신축사업에 공사비 대출해주는 펀드

엘엔에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9호(제19임대주택SH)

- PF대출 펀드 / 순자산 95억
- SH공사가 매입확약 한 서울시내 임대주택 신축사업에 공사비 대출해주는 펀드

엘엔에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0호(제20임대주택LH)

- PF대출 펀드 / 순자산 103억
- LH공사가 매입확약 한 서울시내 임대주택 신축사업에 공사비 대출해주는 펀드

엘엔에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1호(제21임대주택SH/LH)

- PF대출 펀드 / 순자산 65억
- SH/LH공사가 매입확약 한 서울시내, 이천시내 임대주택 신축사업에 공사비 대출해주는 펀드

* 그 외 공모주 관련 펀드 4개(순자산 158억) 포함, 총 수탁고 1,218억원 (순자산 기준 1,300억원)

YOUR NAME HERE

7. 주요 운용인력의 투자 실적

01 서경민 (대표이사)

- 2008년 카카오페이증권((구)바로투자증권) 설립 (대표이사 11년 재임)
- 카카오페이증권 부동산IB본부 설립 및 운영
 - 부동산 개발 주선/중개 : 연 평균 2조원 (물류창고 금융주선 포함)

02 곽세환 (운용1본부 / 투자자산운용사)

- 카카오페이증권 부동산IB본부 (2009년 ~ 2014년)
 - 부동산 개발 주선/중개

03 최형식 (운용1본부 / 투자자산운용사)

- 현대캐피탈 재무지원실 유동화 파트장 (2002년 ~ 2007년)
 - 할부채권 및 대출채권 ABS 발행 : 매년 약 5조원 내외
- 카카오페이증권 IB영업 1본부장 (2010년 ~ 2014년)
 - 용인 미분양 아파트 유동화 금융자문 : 3천억원 규모
- 도이치파이낸셜 CFO, CEO 역임 (2015년 ~ 2018년)
 - BMW 리스채권 ABS 발행 다수

04 고대곤 (운용2본부 / 투자자산운용사)

- 삼성생명 본사 법인사업부
- DB금융투자증권 본사 WM Institutional Team / 1팀장 / 부장
- DS투자증권 종합금융본부장 (2016.1월 ~ 2019.7월)
 - SH공사 매입 임대주택 / 청년주택 9개 펀드 금융주관
- 엘엔에스자산운용 SH/LH공사 매입임대주택 펀드 14개 설정



8. 제반업무 파트너



사무실 임대
구KTB빌딩 (5년)



사무수탁
한국펀드서비스 (2019.9.4 ~)



신탁업자 (펀드 수탁사)
IBK기업은행, 미래에셋대우PBS
농협은행, NH투자증권PBS



감사/법인세 신고
삼덕회계법인



IT보안/물적보안
한국자산평가 / ADT캡스

9. 언론보도

01 2020.02.18, 연합뉴스

3개 자산운용사, 금투협 정회원 신규 가입



금융투자협회 정회원 신규 가입

금융투자협회가 18일 신규 정회원 가입을 승인한 3곳의 자산운용사에 회원 증서를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와이엔피자산운용 유관식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쉐프인자산운용 지승창 대표, 엘엔에스자산운용 조성호 전무. (금융투자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자산운용사 3곳의 정회원 신규 가입을 승인하고 회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새로 가입한 회사는 엘엔에스자산운용, 와이엔피자산운용, 쉐프인자산운용이다.

이에 따라 협회의 정회원은 304곳으로 늘었다. 정회원은 증권사 57곳, 자산운용사 229곳, 선물회사 4곳, 부동산신탁사 14곳 등이다.

02 2020.03.04, 연합뉴스포맥스

연암인포맥스

[12월 결산운용사③] 신생업체 3곳 중 2곳이 적자

최정우 기자 | 승인 2020.03.04 09:33 | 댓글 0

(서울=연합뉴스) 최정우 기자 = 지난해 12월 결산 자산운용사 229곳 중 79개 회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운용사 인가를 받은 30여개 사모 운용사 중 적자를 기록한 회사가 20곳을 넘어서면서 얼어붙은 펀드 투자 심리를 반영했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12월 결산 운용사는 총 32곳이었다.

이중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운용사는 23곳으로 집계됐다.

적자폭이 가장 큰 운용사는 발백케이피엘자산운용으로 지난 한 해 순이익은 마이너스(-) 9억6천600만원이었다.

뒤를 이어 페블즈자산운용과 트로스자산운용 등이 7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흑자를 기록한 곳은 케이리츠투자운용, 자산운용현, 헤리티지자산운용, 엘엔에스자산운용 등 9개 운용사다.

케이리츠투자운용의 경우 지난해 48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며 신생 운용사 중 가장 큰 흑자폭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자산운용현과 헤리티지자산운용 등이 7억원대 흑자를 보였다.

신생 자산운용사들이 적자를 많이 본 것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으로 촉발된 사모 펀드 시장의 위축영향으로 풀이된다.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중순 이후 펀드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사모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운용 자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수익을 내는 운용사도 줄어드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16층



홈페이지

<http://www.lnsasset.com>